

잘 나가는 ‘케이닉스’ 경주마들

역시 혈통...잇따르는 해외 승전보

‘K WAVE’ 17일 美 경주 첫 출전 우승
유전자정보 프로그램 ‘케이닉스’ 효과
케이닉스 3세마 프로그램 우수성 검증

케이닉스(K-NICKS) 경주마가 또 한번 일을 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케이닉스로 선발한 경주마 ‘K WAVE’(3세, 수)는 17일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그랜드 레이스 코스 제3경주 M SW(Maiden Special Weight, 미승리마 특별중량, 1200m)에서 우승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우수 경주마 선발 및 최적의 교배 프로그램, ‘케이닉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당장 알 수 없는 말의 잠재력을 유전자를 통해 파악해 우수한 경주마를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씨수말을 육성해 한국경마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산업 관계자의 기대를 받고 있다.

●케이닉스 경주마의 빛나는 우승

이날 ‘K WAVE’는 결승 직전 큰 추진 없이 2위와 5와3/4마신(1마신=약 2.4m) 차로 첫 출전한 경주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출발대에서는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2마신차로 바짝 선두를 추격하며 강한 승부욕을 보였다. 경주가 전체적으로 빨리 전개됐지만 ‘K WAVE’는 400m 지점부터 파워 넘치는 걸음으로 추월에 성공, 1분10초48의 좋은 기록으로 우승했다.

Ben Colebrook 조교사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이번 우승이 마필에게 더욱 의미미한 가치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마체 점검 후 9월 치릴다운 경마장이나 10월초 킨랜드 경마장 Allowance를 겨냥해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K WAVE’와 함께 호흡을 맞춘 Deshaw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우수 경주마 선발 및 최적의 교배 프로그램 ‘케이닉스’를 통해 선발한 경주마들이 해외에서 승전보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그랜드 레이스 코스 제3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K WAVE’와 Deshaw Parker 기수.

Parker 기수는 “발주 당시 머리에 튀는 모래를 꺼려했지만, 마필 스스로가 잘 달려 쉽게 우승했다”며, “스테이크스 우승후보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말산업 발전에 한 획 긋나

‘K WAVE’는 한국마사회 해외종축개발팀이 케이닉스를 활용, 2016년 3월 플로리다 OBS 2세마 경매에서 유전자분석을 통해 구매한 3세 수말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우승을 통해 기존의 혈통, 외모, 보행평가를 통해 선발하던 방식을 넘어 유전·육종이론에 기초한 과학적 선발방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한국마사회 해외종축개발팀에서 구매한 3세 경주마는 7두. 그중 네 마리가 미국 경주에 출전해 3두가 우승을 거뒀다. 대표말로 는 2016년 현역 최고의 명마를 가리는 미국의 브리더스컵에 본선 진출한 ‘J.S.Choice’와 미국 3세마 최고 스피드지수인 118을 기록해 미국 경마계를 놀라게 한 ‘Mr.Crow’가 있다.

자체 개발한 유전자 기술로 선발한 경주마의 미국 경주 우승으로 케이닉스 사업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나머지 3세마의 경주 출전을 통해 케이닉스 선발방법의 우수성 검증과 장래 씨수말 활용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베테랑 브리그 저력, 큐피트파워 상승세 맞대결

27일 1등급 경주마 대거 출전 각축
만능재주꾼 선봉, 상승세 지속 관심

신예마의 상승세가 계속될까. 27일 열리는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1등급, 1400m, 연령 오픈)는 1등급 말들의 폭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레이스다. 스피드와 힘이 좋은 신진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말들이 나서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 덕분에 이번 가능성도 있어 뜻밖의 반전의 드라마 펼쳐질 수 있다.

●브리그(한국, 7세, 수, R95)

1억6000만원에 낙찰되며 당시 국산마 최고가를 경신한 말이다. 7세의 고령마이지만, 젊은 말들과 당당히 겨루고 있다. 올해 출전한 4번의 경주에서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순위상금을 챙겼다. 1400m인 직전 경주에서 출전마 중 최고 부담중량인 57kg을 달고도 4위를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큐피트파워(미국, 5세, 수, R93)

1등급 승급 전까지 순위상금을 놓친 적이 없는 예이스였다. 1등급 출전 후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성적이 오르더니 최근 출전한 3번의 경주에서 연달아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1400m에 8번 출전해서 2번 우승한 경험이 있다.

●테마등극(한국, 4세, 수, R94)

1400m에 6번 출전해 2번 우승, 2번 준우승을 기록했다. 올해 1월 1등급 데뷔전을 치른 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경주에서 1등급 첫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경주에서 55.5kg로 높아진 부담중량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컨디션 회복을 알렸다.

탈 땀았던 용산 장외발매소, 결국 문 닫는다

한국마사회, 용산대책위와 이진 협약 체결

지역민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가 결국 문을 닫는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 및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장외발매소 혁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2015년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이후 지속돼온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마사회-을지로위원회-농정개혁위원회-반대단체’ 4자가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반대운동에 참여한 온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대책위원회



27일 랫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로 열리는 1등급 경주에서 상황에 따라 선봉, 선입, 추입이 모두 가능한 ‘만능 경주마’ 선봉의 선전이 기대된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선봉(한국, 5세, 수, R92)

전형적인 자유마로 상황에 따라 선봉, 선입, 추입이 모두 가능한 ‘만능 경주마’다. 3세였던 2015년에는 서울을 대표했던 국산마라 기대치가 높다. 최근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직전 경주에서 순위상금을 거머쥐며 컨디션 회복을 알렸다. 1400m에는 총 5번 출전해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기록했다.

●광복칠십(미국, 4세, 수, R97)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 발휘에 강점이 있다. 지난해 9번의 출전 중 3번 1위를 하는 등 주목받는 3세마 시절을 보냈다. 1등급 승급 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단거리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올해 출전한 3번의 1400m 경주에서 모두 3위 안에 입상했다.

●디블레메틱션(미국, 5세, 수, R91)

초반 스타트가 좋은 단거리 적성마다. 1400m에 15번의 출전 경험이 있다. 7월 2번의 1400m 경주에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을 기록했다. 특히 7월2일에는 출발부터 결승선까지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내어주지 않는 ‘와이어투와이어’(wire to wire) 우승을 이뤘다. 해당 거리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기대된다.

정용운 기자

세계무대로 가는 한국경마, 호주 스포츠 캐스터 27일 수출경주 중계

인기 아나운서 매튜 힐, 25일 방한

호주의 유명 스포츠중계 캐스터 매튜 힐이 25일부터 27일까지 랫츠런파크 서울을 방문한다. 그는 1998년부터 20여년간 6차례 올림픽경기, 경마, 호주풋볼리그(AFL), 테니스, 스피드스케이팅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중계를 맡아온 베테랑이다.

한국마사회는 매튜 힐이 27일 호주에 송출되는 수출 경주 중 일부를 중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튜 힐은 한국마사회 영어 중계 아나운서인 영국 출신의 알라스테어 미들턴과 공동 중계를 한다.

매튜 힐은 우승 상금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원)인 세계적 경마대회인 두바이월드컵, 일본 재팬컵,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애물 경

주인 영국 그랜드 내셔널 등 유명 경마대회의 중계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그런 그가 한국경마에 관심을 갖고 직접 경주 중계에도 나서는 이유가 있다.

한국 경마는 국내 합법 사행산업 중 유일하게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6월 싱가포르 정기 수출을 시작으로, 2015년 말레이시아, 2016년 호주, 2017년 미주지역으로 시장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계경마 2부 리그격인 파트2(PART 2)로 승격했다. 코리아컵(GI), 코리아스프린트(GI) 등 국제 경주를 개최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가 유명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인 매튜 힐이 한국경마를 주목하게 된 계기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매튜 힐은 중계 외에 기수, 조교사 인터뷰 등 한국경마 전반에 대한



호주의 유명 스포츠중계 캐스터 매튜 힐이 27일 호주에 송출되는 한국마사회의 수출 경주 중 일부를 중계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기사를 작성해 현지 유력 경마매체에 기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경마가 호주 경마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잡아 호주 수출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 토드

“한화 4~5점-KIA 2~3점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드 수탁사업자(㈜케이토토)는 8월 25일에 열리는 2017시즌 한국프로 야구(KBO)리그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80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1경기 한화-KIA전에서 50.83%가 KIA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한화의 승리 예상은 35.08%였고 나머지 14.10%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전망했다. 최종 점수대로는 한화(4~5점)-KIA(2~3점) 항목이 1순위(6.94%)를 차지했다.

2경기 삼성-SK전에서는 43.18%가 SK의 승리를 예상했다. 삼성의 승리투표는 41.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15.85%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선택했다. 최종 점수대에서는 삼성 6~7점, SK 4~5점 예상이 7.59%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3경기 롯데-LG전에는 47.90%가 홈팀 롯데의 승리를 내다봤다. 원정팀 LG의 승리는 36.41%, 같은 점수대는 15.67%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로는 롯데 4~5점대, LG 2~3점대 예상이 1순위(8.62%)로 집계됐다.

야구토토 스페셜 80회차 게임은 8월 25일 오후 6시 2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최종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야구토토 스페셜 80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한화 VS KIA		삼성 VS SK		롯데 VS LG	
경기일시	8.25(금) 18:30		8.25(금) 18:30		8.25(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4~5)-(2~3)	6.94%	(6~7)-(4~5)	7.59%	(4~5)-(2~3)	8.62%
2	(2~3)-(4~5)	4.89%	(4~5)-(2~3)	6.55%	(6~7)-(2~3)	5.54%
3	(2~3)-(6~7)	4.78%	(6~7)-(8~9)	4.97%	(4~5)-(6~7)	5.48%
출입 승	35.08%		41.00%		47.90%	
같은 점수대	14.10%		15.85%		15.67%	
출입 패	50.83%		43.18%		36.41%	

* 게임방식 : 3경기 6게임(또는 2경기 4게임) 최종 승패에 맞춰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8. 25(금) 18시 20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축구팬 “팬유, 승점 추가 예상” 82.93%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중간집계

케이토토가 8월 26일과 27일에 벌어지는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독일 분데스리가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를 발행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리그 초반 불같은 화력으로 평가제전에 나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초반 2연승으로 축구팬들을 놀라게 한 승격팀 허더즈필드타운이 또 다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전통의 강호 리버풀-아스널의 맞대결도 준비됐다. 디펜딩챔피언 첼시는 친정으로 돌아온 루니가 활약하는 에버턴을 상대하는 등 축구팬들의 흥미를 끌만한 경기가 많다.

●맨유 VS 레스터시티

맨유의 시즌 출발은 완벽하다. UEFA 슈퍼컵에서 레알마드리드에게 패했지만, 이어진 리그에서는 웨스트햄과 스완지를 나란히 4-0으로 대파했다. 포그바가 적응을 마쳤고, 올 시즌 새로 가세한 루카쿠가 공격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원정팀 레스터시티는 시즌 1승1패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첫 경기 아스널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무려 3골을 성공시켰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맨유가 크게 앞선다. 큰

이번이 없다면, 맨유가 어렵지 않게 승점을 추가

할 수 있는 경기로 보인다.

●리버풀 VS 아스널

리버풀-아스널의 라이벌전에서는 45.84%의 축구팬이 안방 앤필드에서 경기하는 리버풀의 승리에 표를 던졌다. 두 팀의 시즌 초반은 좋지 못했다. 그나마 분위기는 리버풀의 기세가 좋다. 8월 24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했다.

●첼시 VS 에버턴

첼시-에버턴전에서는 첼시가 돌아온 루니를 올리고 승점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65.16%였다. 디펜딩챔피언 첼시는 여전히 좋은 전력이지만, 리그 초반에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반면, 에버턴은 퇴장당한 루니를 중심으로 개막전을 승리했다. 이어진 강호 맨체스터시티전에서도 1-1 무승부를 해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했다.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게임은 8월 26일 오후 9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상세한 일정은 케이토토 및 스포츠토드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8월 29일에 벌어지는 한국프로야구(KBO) 5경기와 메이저리그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야구토토 승1패 21회차 게임을 발행한다.

KBO에서는 29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 넥센-SK(10경기), 두산-롯데(11경기), 한화-LG(12경기), 삼성-KIA(13경기), kt-NC(14경기) 등 모두 5경기가 야구팬을 찾아가는다. 메이저리그(MLB)에서는 필라델피아-애들랜트(1경기)전을 시작으로, 뉴욕양키스-클리블랜드(2경기), 볼티모어-시애틀(3경기), 토론토-보스턴(4경기), 시카고-피츠버그(5경기), 캔자스-탬파베이(6경기), 콜로라도-디트로이트(7경기), LA 에인절스-오랜덤(8경기), 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9경기)전까지 모두 9경기가 선정됐다.

케이토토는 “주말까지 각 팀들의 성적과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적중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발매를 시작한 야구토토 승1패 21회차 게임은 28일 밤 9시 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